# 걸기명상과 환경정화 통해 도심포교

##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 3월 26일 제1차 도심포교 및 환경보호운동 개최

### 불교미래 위한 '도심포교' 전도 선언 자연보호 생명살림, 불교 정신 전달 포교원 '전법ON!' 순례 발맞춘 행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이 3월 26일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제1차 도심포교 및 환경보호운동'을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 포교사단)이 3월 26일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제1차 도심포교(명상 걷기) 및 환경보호운동'을 개최했다.

부산 포교사단은 행사 목적을 '도심포교'라고 밝혔다. 도심 한가운데서 걷기 명상을 실천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불교 활동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는 목표다. 또 포교사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활동을 다시 활발히 전개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송재린 단장은 "오늘 행사는 '도심포교만이 불교가 살길'임을 알리는 도심포교 전도 선언이다"며 "또한 자연보호 운동을 통해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2022년 단장 취임 이후 발표한 부산 포교사단의 사업 중 하나였는데 지난 2월에 포교원장 범해 스님께서도 순례와 신행을 통한 전법 토대 구축 '전법ON!' 순례를 실시한다는 종책을 발표하셨다. 종책과 부산지역단의 사업이 통한 듯이 뜻이 맞아 더 의미 있는 행사이다"고 말했다.

걷기 명상 및 환경정화 활동은 부산 북구 지하철 3호선 구포역을 출발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역까지 약 7km 동안 이어졌다. 구간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부산 북구 낙동강변 산책 코스이며 부산시에서 선정하는 아름다운 산책로 '갈맷길' 가운데 하나이다. 산책로는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뤄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이지만, 많은 시민의 방문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행사에는 지도법사 해륜 스님(범어사 포교국장)과 송재린 부산지역단 단장 및 역대 단장들을 비롯해 중부지역, 남부지역, 서부지역 등 포교사단 각 총괄팀장 등 부산 포교사단 300여 명이 동참했다.

포교사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고, 걸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마음을 기울이는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또 봄을 맞아 피어난 봄꽃들을 바라보며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법사 해륜 스님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활개를 펼치고 멋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걷기명상과 자연보호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불교의 정신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송재린 단장은 "우리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자리이타행을 실천하고 불법홍포와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포교사단이 하나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월선원만행결사 평화순례가 부산에서 진행될 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의지도 전달했다.

한편, 부산 포교사단은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발생한 산불피해 극복 후원금 32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이날 행사에 동참한 포교사들에게 제공할 점심 공양비였다. 포교사들은 행사 참여 전에 공양비 제공 소식을 들었고, 이재민 돕기에 전액 회향할 뜻을 밝혔다.

# 여여불교대학, 입학생 395명 등록

## 3월 27일, 제3기 입학식 및 졸업식



부산 여래선원 여여불교대학(학장 효산, 이하 여여불교대학)이 3월 27일 경내 법당에서 '2022년 불교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여여불교대학 입학생은 주간전문반 45명, 야간전문반 91명, 주말전문반 38명, 온라인불교대학 53명을 포함해 227명과 법화경 경전반 168명이 입학해 총 395명이 등록했다.

여여불교대학은 도심포교를 목표로 3년 전에 개원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매년 400여 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등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여여불교불교대학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 불교역사,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며 책 〈가시를 거두세요〉의 저자 광우 스님의 특강도 이어진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된다.

학장 효산 스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자 많은 불자들이 등록해 감격하다"며 "부처님의 전법 선언처럼 정법을 수호하고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서예작가 3인 '吳李長 展' 개최

〈오이장〉

## 통도사성보박물관, 4월 17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이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오이장(吳李長)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지혜, 이정, 장인정 세 명 서예인이 참여하는 전시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이며, 작가들은 주제에 따라 문인화, 전각, 현대서예,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오지혜 작가는 '연꽃'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인화를 선보인다. 이정 작가는 서예의 문자성을 가지고 '불립문자'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인정 작가는 전각을 통해 불상의 이미지를 색다르게 보여준다. 작가들의 합동전시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1998년 첫 합동전시를 시작으로 2014년에 열었던 오이장 展 '익자삼우(益者三友)' 이후 8년 만에 다시 마련됐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서예는 불교전통예술문화의 한 분야이다. 고승들은 서예를 통해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경지를 넘어서서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예술을 보여줬다"며 "이번 전시는 과거를 잇고 현대 작품의 특징을 함께 보여주는 새로운 서예 전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055)384-001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사)나누우리, 산불 이재민돕기 성금전달

## 울진군청에 성금 2000만 원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사)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3월 28일 울진군청에서 이재민 긴급구호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한 성금은 나누우리에서 1000만 원, 회원불자들이 모은 이재민 돕기 성금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이며, 성금은 동해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만우 스님과 상임이사 자우 스님, 홍보이사 무종 스님을 비롯해 방형섭 행정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광명사, 제1기 생활치유명상 강좌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3월 3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1기 생활치유명상 개강식'을 봉행했다.

첫 강좌에서 윤종갑 교수는 '명상 이해'와 '명상 및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명상은 인간 문명이 발전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전승 발전되었다. 물질문명이 발전할수록 명상의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가운데 사람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힘들어한다.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명상이다"고 말했다.

개강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주지 스님 환영사 △강사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윤종갑 교수의 명상 이론 수업이 이어졌다. 개강식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윤종갑 교수와 안영숙 강사가 참여했으며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가 3월 3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1기 생활치유명상 개강식'을 봉행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 수많은 법계가 들어왔다 나간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우주법계와 나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이다"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지켜보며 일상 가운데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알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마음챙김을 통해 주인공으로 여여하게 일상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종갑 교수(동아대 철학생명윤리학과)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다. 사회의 어려움과 함께 마음의 불안도가 더욱 높아진다"며 "심신의 안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좌가 열린 것 같다. 이런 시간을 열어주신 광명사 주지 스님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명사는 일상 생활 가운데 명상을 적용하고 불자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치유명상 강좌를 마련했다. 생활치유명상은 3월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지관전에서 진행한다. 명상과 호흡, 지관명상과 깨달음, 걷기명상, 정좌명상, 바디스캔 등 이론과 실기를 교차로 강의가 진행되며 총 15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수정산투자, 아동·청소년 지원 후원금

㈜수정산투자(대표 김호윤)가 3월 28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에 부산진구 개금3동 거주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현물지원 사업,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사회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회복지 탐구생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신체와 정서 성장 및 지역사회 관심 확대 지원 프로그램 'GOOD食(식)'에도 활용된다.




㈜수정산투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지 3년이 되었다"며 "지원을 통해 부산진구 개금3동의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